한국 양계산업의 발전방향

오 세 정
(건국대 축산대 교수)

우리나라의 양계산업을 회고해보면 여러가지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눈부신 발전과 고도의 성장으로 이제 어느면에서는 기반조성은 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너무나 많음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 모두가 일조일석에 달성될 수는 없는 일이나 최근 국내외경제와 환경여건상 국제간 교역자유화 물결, 수입개방압력등 치열한 경제전쟁, 자원전쟁 등에 처해 있는 현실에 있느니만큼 양계분야도 예외가 될수 없는 일이며, 이에 대처하여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생산성제고와 품질향상이 시급한 과제이고 앞으로 몇년간이 양계산업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가 되리라고 본다. 즉 도약이냐? 쇠퇴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근년 닭의 사육동태를 살펴보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8년도까지 사육농가 호수가 100만호가 넘던 것이 점차 감소되어 1985년 3월 통계에 30만호로 감축되었으며, 앞으로 양계인 각자가 크게 각성하지 않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한 스스로 자멸될 것이고, 생존권을 포기하는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며, 이는 외국에서 계란과 계육이 싼값으로 홍수같이 밀려와 국내 양계업자는 전멸되든가 몇사람에 의해 생산공급되는 대기업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농후함을 예견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닭 사육동태

연 도	사 육 호 수	연도말 사육수수
1960	1,210,565	12,030,411
1965	1,320,425	11,892,612
1970	1,338,481	23,632,717
1975	1,094,464	20,938,732
1979	923,098	41,120,522
1980	692,219	40,129,924
1981	628,380	42,999,172
1982	618,463	46,591,640
1983	538,369	49,239,436
1984	367,004	46,483,161
1985	300,712	45,934,000

우리의 현실, 외국보다 값싸고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하나도 없다. 과거에는 인건비라도 싸다는 생각이었으나 지금은 오히려 비싸게 되었으며 양계장의 일을 모두 기피하는 실정이 아닌가?

그리고 생산재를 모두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생산재를 판매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여 생산물인 계란과 계육화시켜 파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치열한 경쟁속에서 생산능력을 높이고 원가를 절약하여 손해를 보지않는 자는 남아 있게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전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최근 사육농가 호수의 감소는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미국의 한 양계장에서 육계를 연간 3억마리를 생산공급하고 있는 것을 볼때 이는 우리나라의 연간 소비량과 같은 양이다.

이와같이 어려운 환경과 시기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다같이 생각하고 반성하여 묘안을 찾아서 대처하고 개선시킬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어려운 때는 전 양계인이 우선 사리 사욕을 버리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조화로 협력단결하는 정신적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단합없이는 공멸만 있을 뿐이다.

1. 새로운 각오와 정신적인 자세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각자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냉정히 반성하여 보자./ 자신의 경영방법, 기술, 시설환경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잘되고 있나? 선진화되고 있나? 국제 경쟁력에서 승자가 될 수 있나?

만일에 안되고 있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인가? 일차적인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격변하는 현실에 안일한 사고, 타성과 인습에만 젖어 남의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며 서로 협조하는 것만이 공영 공생의 길이 될 것이다.

창의와 창조적인 실천으로 과감히 개선하고 전 양계인이 이해와 양보로 굳게 단결하여 대처하는 것만이 우리 살길이요 나아갈 길이다.

2. 한국적인 양계경영형태를 정립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선진국의 기술과 문명을 도입하여 급속도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지나친 모방과 선호로 시행착오도 많이 있음을 알고 있다.

미국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사료의 주원료가 다르고 영양수준에 차이가 있고 유럽국가에서도 국가마다 각기 실정에 따라 사료배합이나 경영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국가적 지표를 달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도 이제는 무조건 특정 국가의 특정 이론에만 의존하고 모방할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야 하며 자아를 인식하고 국가관을 찾을 때라고 본다. 잘못하다가는 주관과 지표가 없이 우왕좌왕하며 예속화되고 자멸만 자초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업계, 학계, 관계 등 광범하게 모여 우리의 나갈 길을 찾는 고차원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즉 공개토론과 공청회를 가져 한국적 양계산업의 발전방향과 안정화를 위한 공약수를 찾아 지표를 세워 정책적 지원과 시책이 일관성있게 실천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내외가 격변속에서 즉흥적인 시책, 조령모개하는 시책, 사문화되어 있으나마나한 법집행 등은 선진화가 아니라 혼란과 후퇴가 되지않을까 기우되고 있다.

명약은 입에 쓰고 단맛은 병이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가슴을 터놓고 우리의 살아나갈 길을 찾아 나갈 때라고 본다.

3. 소비촉진은 우리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 와서 지나친 사치성과 소비성, 낭비하는 경향이 심화되는 느낌이다.순수한 국내원료에 의한 생산제품이라고 한다면 몰라도 외국의 시장화에 의한 외화유출, 부채라고 하면 반성하고 자제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한가정에서 자기의 분수(수입)에 맞지않게 빚을 얻어다가 고기와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하는 사치스런 생활을 한다면 그 집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명지사이다. 외채가 얼마나 되고 세계에서 몇번째라는 말을 들을 때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소비촉진운동에는 많은 방법과 의견들이 있을 것이나 현실 국가경제적 차원과 외채상환, 수입억제로 안정적 경제발전이라는 대과제로 볼때 합리적인 가계와 국민보건적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건전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앞으로 각 분야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위정자들의 냉정한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화 문명생활의 후퇴를 시키자는 의도가 아니 건전한 기반 위에서 과학문명의 선진화와 선진국으로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하는 제안임을 양지

하기 바란다.

4. 생산자가 유통에 참여되어야 한다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유통과정이 복잡하고 다원화되었으며 또한 유통업자의 횡포와 폭리로 얼마나 생산자가 곤욕을 치렀는가? 다 체험하고 알면서 어찌 방법이 강구되지 못하고 개선되지 않는지? 부도덕한 상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직판점을 설치 함으로써 유통마진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시킴으로써 서로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으며, 생산자 출하가격을 안정화시키며 소비자의 신뢰성으로 소비증대와 수급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앞으로는 생산자가 수급조절, 가격결정을 주도하고 품질의 향상을 가져오게 노력하여야 한다.

5. 품질개선과 이익확대를 촉구한다

소비자의 보건위생과 식생활의 개선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우선 위생적인 계란과 계육을 생산하여야 한다.

현재 계사환경과 관리 및 사양면에 문제점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산자가 검란하여 식란을 생산공급토록 제도화되어야 하며, 생산자의 농장명 또는 조직단체명으로 유통판매하는 신용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이용확대를 위한 방법이 적극 개발이 되어야 한다. 즉 노계를 고급식품화하는 방안, 불가식부분의 효율적인 이용과 진미, 효능의 인식을 개발 주지시켜야 한다. 예로 마른안주화, 비삼, 용탕, 가공육, 닭포, 쏘세지 등이 있겠다.

6. 생산원가절감에 최대 주력하여야 한다

경영적인 면에서 남보다 더 원가를 절약하는 방안을 탐구 창조하는 자는 번창할 것이고 구태의연한 인습과 방법으로 경영하는 자는 머지않아 전직하지 않을수 없는 일이다. 특히 수입자유화로 개방될 경우 더욱 가속화될 것이므로 하루속히 스스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현재 양계경영자들은 다알고 있으 면서 개선하지 못하고 실천만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료비, 인건비, 육성비의 상각, 위생방역비, 기타 운영관리비 등 모두 절약하고 효과적인 운영으로 생산원가를 최대로 저렴하도록 연구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생산성을 제고시킬수 있다.

7. 시설 및 환경관리의 개선이 시급하다

계사의 구조와 크기, 상태는 닭의 생활환경을 크게 좌우하여 생산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며 생산비와 경영면에 크게 영향을 미치어 생산성을 좌우하는 큰 요인이 되고있다.

중요사항과 개선점을 요약하면

① 성력화를 위한 제반관리기구를 기계화시키고 자동화시켜야 한다(급수, 급사, 제분, 집란, 환기, 점등, 선란과 검란 등).

② 1인당 관리수수를 극대화(1만~3만수)

③ 한동의 면적을 최대 넓이로(300평이상)

④ 단위면적당 수용수수를 극대화(50~100수로)

⑤ 최적온도를 유지하도록 방서, 방한, 방풍하여 성계온도는 15~18℃가 되게끔 할것

⑥ 실내에서 냄새와 먼지가 보이지 않도록 환기에 철저를 기할것(신선한 공기유지)

⑦ 외적의 침입을 방지

⑧ 안정된 환경조성을 위해 소음, 경각심, 공포심을 가지지 않도록 조성해 줄 것

⑨ 방역위생에 최대 주력할 것

⑩ 관리자는 애정과 정성어린 관리태도가 실행되도록 인사관리를 할 것

8. 협업조직에 의한 경영으로 생산성 제고와 권익보호를 하여야한다

현상태로 나가면 몇사람에 의한 대기업화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전술한 한국적 양계형태방향은 협업적인 운영을 제안하며 현재 경남의 오경농장 같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가노동에 의한 적정규모로 시설개선과 사육수

수를 증대시키고 공동구매와 판매, 시설의 공동이용, 자금을 효율화시키며 생산성을 극대화시킨 만큼 자기의 이윤이 올수 있도록 발전적인 개선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양계조합(채란계), 육계조합을 구성하여 참된 조합체제로 운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소규모의 개별운영은 앞으로 점점 불리해지며분업화, 전문화가 되지못하고 관리자의 정신적 집중화가 되지않아 소홀히 되기 쉽고 운영비가 과중되어 불리한 경영이 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운영자의 신의와 척도에 있으며 얼마만큼 정직하고 열과 성의로서 조직을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 나가서는 단체기능의 강화와 회원의 참여도 및 협력과 실천에 있다.

9. 정확한 통계와 생산조절에 의무화가 실천되는 날 양계산업은 안정화가 된다

생산이 과잉됨으로써 값이 폭락되어 생산자에 큰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외화의 낭비가 되어 국가적인 손실이 크다. 그러므로 적정수수의 사육과 생산으로 가격의 안정화는 양계산업의 안정화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기 위하여 종계수수의 적정한 시기별 확보, 부화과정에서 생산조절, 입식 즉 사육자의 적정한 입추 등 이는 모두 정확한 통계가 집계됨으로써스스로 관측과 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업종별로 조직이 강화되고 통계가 정확히 보고 집계됨으로써 자제와 공동대처될수 있게 된다. 그간 정부의 지원으로 통계조사하던 것을 중단됨이 없이 더욱 강화하고 보다 정확히 조사집계되길 촉구하는 바이다. 관계당국은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소홀함이 없어야될 것으로 사료된다.

10. 생산자가 스스로 안정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생산물의 수급안정과 양계산업의 공생, 공영, 공존, 공익을 위해 조직단체별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는 민간주도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지 관권의 개입은 매우 불합리한 점을 야기시키게 된다. 물가농정은 지상과제이나 현재 농산물에 한해서 흉작으로 폭등하는 경우 외국에서 수입해 공급 하고, 풍작인 때는 방치해 농민들만 골탕먹는 농정(경제정책)이 원망스럽기 때문이다.

전양계인 여러분, 우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법의 뒷받침이 없다하더라도 스스로 조성할수 있는 힘과 단결된 행동이 불가능한가? 호소하는 바이다.

양계인 스스로가 정의사회구현과 참된 선진문화 창달을 위해 실천을 바란다.

11.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축산발전은 1967년도 박정희 전대통령이 축산진흥이 농촌경제발전과 국가경제 부흥이란 차원에서 크게 관심을 가진것이 오늘의 발전의 초석이 됨을 잘 알고 있다.

소값하락, 유제품체화, 난가폭락등 어려운때 정책입안과 위정자의 속 시원한 답변이나 조치가 아쉽게 느껴지고 있다. 당국자도 소신있는 대책이 없는지?

앞으로 한국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몇가지 사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양계안정법의 제정
② 세율인하와 조세감면조치
③ 시설설계비 폐지와 간소화로 건축가능토록
④ 전문시장 확대개설 운영지원
⑥ 저장 및 가공시설의 확대지원
⑥ 기계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도입품에 면세
⑦ 단체기능 활성화를 위한 권한부여(자율, 자제할 수 있는 등록, 허가권, 추천, 검사등)
⑧ 계통별조합 구성의 촉구와 특혜
⑨ 방역위생에 보다 철저한 대책
⑩ 축산직, 지도직 공무원의 증원
⑪ 축산청으로 행정기구개편 등

이제 축산물이 영양식이나 사치성식품이 아니고 주식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로 볼때 미곡증산에 기울이는 힘의 1/100이라도 지원과 조처가 있으면 하는 것이 축산인의 바람이다.

한번 터 놓고 대화를 하고 서로 이해함이 선진조국 문화창달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